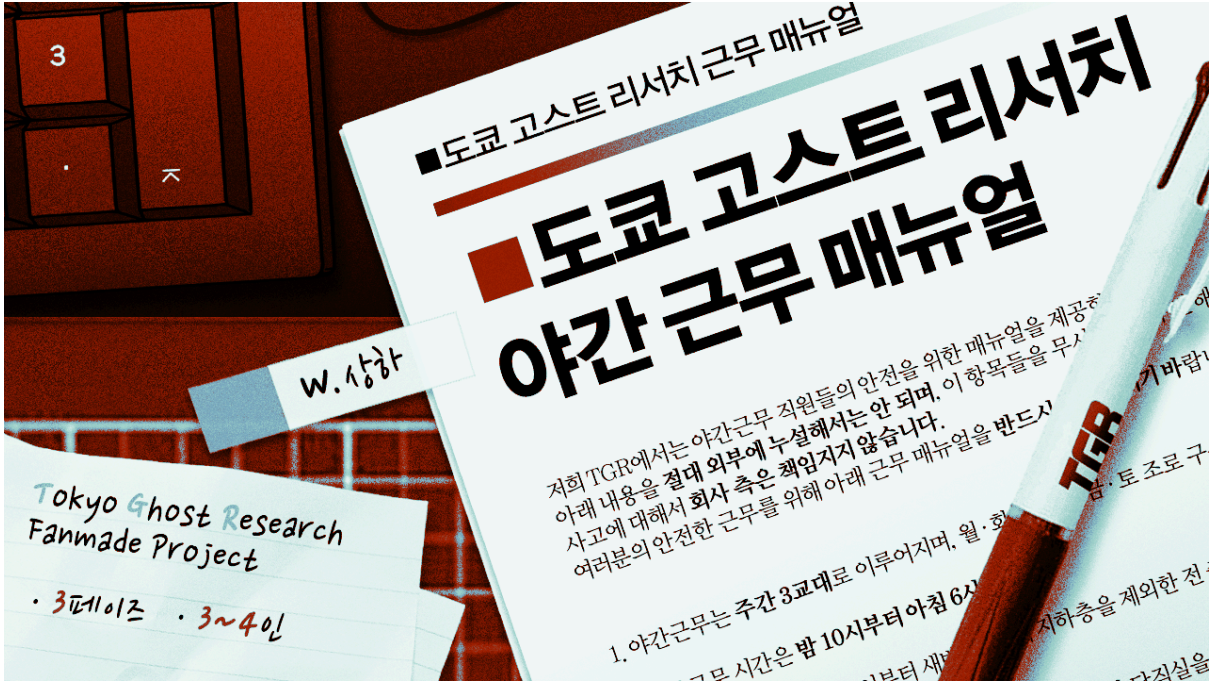


# [도쿄 고스트 리서치 야간근무 매뉴얼]



프로젝트명: 도쿄 고스트 리서치 야간근무 매뉴얼

라이터: 상하

필요 인원: 3~4명

페이지 수: 3

배경: 일본(개변가능)

## 주의사항

- 약칭은 「도야매」입니다.
- 룰북 없는 마스터링 및 쿠션 없는 스포일러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 야간경비원 나폴리탄 괴담 소재라는 전체적인 틀을 유지한 선에서의 개편을 적극 환영합니다. 다만 개편한 프로젝트의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본 프로젝트에 나오는 인물, 지명, 기관 등은 실제와 무관한 것으로 허구임을 밝힙니다.
- 하우스 룰을 사용하였습니다.
- 본 프로젝트는 공포, 고어, █████ 묘사가 있으며, 이 요소가 싫으신 분들은 주의해 주세요.
- 본 프로젝트는 도쿄 고스트 리서치 본사의 총 구성을 마음대로 상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혹여 본인이 상상한 회사의 모습과 다를 경우 자유롭게 개편하여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젝트의 회사 총 구성을 다른 탁에 반영하여도 좋습니다.
- 매니저로서 플레이 시 사본만들기를 사용하여 이용해 주세요.
- 첫 프로젝트이며, 사정이 있어 테스트 플레이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 개요 · 목적

어느 날, 퇴근하려던 직원들은 상사로부터 야간근무를 서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기존에 야간근무를 서던 직원들이 전날 실종되어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급하게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사는 직원들에게 반드시 매뉴얼을 잘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는 동시에 실종에 대한 단서를 찾으라고 지시합니다.

직원들은 야간근무를 서면서, 필요에 따라 영적 현상에 대처해야 합니다.

\*2021.06.10: 매뉴얼 내용 수정 및 태스크 난이도 조정

\*2024.06.28: 오타 수정, NPC RP 가이드 추가

\*2024.07.30: 추천BGM 추가



아래 페이지부터 진상이 이어집니다.

**MG만 열람해 주세요.**



## 배경 · 진상

명색이 제령 회사인 TGR 내에 위험한 영이 돌아다닐 리가 없잖습니까? 의미심장한 매뉴얼의 주인공인 영들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에게 무해합니다. 혼자 있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은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혼자보단 둘이 대처가 빠르니까요. 전임자들의 실종은 매뉴얼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날 밤, 기술부에서 진행하던 '이세계로 가는 엘리베이터' 실험 중 사고로 본사의 엘리베이터가 이계와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이계와 연결된 엘리베이터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움직입니다. 다만 불완전한 연결이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움직임을 멈추고 영적 연결이 강해지는 새벽 1시~3시에만 작동하며, 그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 어느 층에서 몇 명이나 탑승하느냐에 상관없이 도착한 장소는 이계가 됩니다.

기존 야간근무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고, 이계의 무언가에게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 시작 시점부터 엘리베이터는 '점검 중' 이라며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계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주세요.)

## NPC 정보

타카메 헤이지(鷹目 兵次): 40대 중반의 남성. (말투: ~합니까? ~하십시오. ~니다.) 관리부장. 키가 크고 안경을 썼으며, 날카로운 인상이다. 각진 뿔테 안경을 썼다. 무뚝뚝한 성격으로, 예의바른 말투이다. 정리벽이 있다. (\*본 프로젝트 내에서 명칭을 '상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대체 가능합니다.)

마츠야마 렌(松山 廉): 20대 초의 남성. (말투: ~데요? ~네요.) 영업부의 신입. 싸가지 없고 매사에 대충 대충이다. 금일은 보충 사원으로 차출되어 서무부실에서 대기 중이었다. 야간근무 매뉴얼의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몰래 땡땡이치려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눈앞에서 열리는 걸 보고 냉큼 타버리고 만다. 결국 이계의 무언가에게 끌려가 버렸다. (\*본 프로젝트 내에서 명칭을 '사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대체 가능합니다.)

## 페이지 1

페이지 1에는 다음과 같은 태스크가 있습니다.

- 태스크 「야간근무 매뉴얼 내용 확인」
- 태스크 「인수인계 및 순찰 준비」
- 선택 태스크 「야식 사오기」
- 선택 태스크 「기존 야간근무자들의 사정 조사」

## 태스크 「야간근무 매뉴얼 내용 확인」

개요: 야간근무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한다.

난이도: 2

트러블: 이런 것 하나도 못 찾다니...? 동료들 사이에서 당신의 평가가 하락합니다. 환경 데미지 **1점**.

처리 결과: 야간근무 매뉴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아웃) 도쿄 고스트 리서치 야간근무 매뉴얼

저희 TGR에서는 야간근무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을 절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 항목들을 무시하거나 위반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회사 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근무를 위해 아래 근무 규정을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근무는 주간 **3교대**로 이루어지며, 월·화, 수·목, 금·토 조로 구성됩니다.
2. 야간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입니다.
3. 야간근무 직원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지하층을 제외한 전 층을 순찰해야 합니다.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하십시오.

**3-1.** 잔업이 남은 일반 사원이 남아 있을 경우에도 **2인** 이상 함께하도록 사전에 안내해 주십시오. (10p의 일반 사원 근무 매뉴얼을 인용하십시오.)

4. 순찰 도중 **4층**에서 홀로 잔업하고 있는 사원을 발견한 경우, 눈을 마주치지 말고 다가가 '상당실에서 호출입니다'라고 말하십시오.
5. **5층**의 **3번** 상당실은 현재 폐쇄되어 있습니다. 해당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대로 해당 층을 벗어나십시오. 같은 층에 일반 사원이 남아있을 경우, **3층**의 회의실에 가서 잔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6. **1층** 로비를 제외한 본 건물 복도에는 사진이나 그림 액자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혹여 발견하신다면 액자 안을 바라보지 마시고 뒤집어 걸어

주십시오. 처리여부를 긴급조치사항에 적어 두시면 차후 관리부장이 처리할 것입니다.

매뉴얼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거나 오탈자를 발견한 경우 1층 관리부의 타카메 헤이지 관리부장(내선번호 8007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및 NPC의 이름은 수정 및 재가공 가능합니다.

(\*이미지 링크: <https://i.imgur.com/AH9Cpln.png>) (매크로로 사용 가능합니다)

## 태스크 「인수인계 및 순찰 준비」

개요: 상사에게서 인수인계를 받고 순찰 준비를 한다.

난이도: 4

트러블: 난데없이 밤에 근무를 서게 되서인지, 인수인계 도중 꾸벅꾸벅 졸고 맙니다. 상사가 당신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환경 데미지 1점.

처리결과: 순찰용 손전등과 순찰표, 마스터키, 야간근무자 전용 점퍼를 받았습니다. 근무 종료 시 모두 제자리에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점퍼의 모습입니다. 탁에서 반영하시는것은 자유이며, 로고를 바꿔 재가공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재가공 후 재배포는 금지합니다.)

(\*이미지 링크: <https://i.imgur.com/yKXagpM.png>) (매크로로 사용 가능합니다)

## 선택 태스크 「야식 사오기」

개요: 긴 밤을 보내기 위해서는 야식이 필수. 근처 편의점에서 야식을 조달해오자.

난이도: 2

트러블: 이런...지갑에 돈이 없다... 결국 같이 와준 동료가 대신 돈을 내줬습니다. 미안해요...  
환경 데미지 **1**점.

처리결과: 편의점에서 야식을 잔뜩 사 왔습니다. 이걸로 근무 중 배가 고파져도 안심!

(각 사원마다 야식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야식은 섭취 시 육체 점수, 정신 점수 중 하나를 1 회복합니다. (\*회복할 점수는 사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는 이를 플레이어들에게 안내해 주시고, 이후 진행 도중 사원이 '야식을 섭취한다' 선언 시 해당 사원의 육체점수, 정신점수 중 하나를 1 회복 처리해 주세요.)

## 선택 태스크 「기존 야간근무자들의 사정 조사」

개요: 기존 근무자들이 어쩌다 실종되었는지, 그 사정을 알아본다.

난이도: 6

트러블: 일반 트러블 표를 사용합니다.

처리결과: 며칠 전, 야간근무를 서던 직원들이 갑작스레 실종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증발한 것처럼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사내 CCTV는 1층 로비와 기물보관실 앞, 지하주차장,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의 세 장소에는 직원들이 찍혀있지 않고, 엘리베이터의 CCTV는 사건 전날 엘리베이터가 고장났기 때문에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사에서는 이 실종 사건을 영이나 요괴의 소행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 원인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 페이지 2

페이지 2에서는 다음과 같은 태스크가 있습니다.

- 태스크 「야간 순찰」

※태스크 「야간 순찰」을 처리하면, 아래의 긴급 태스크가 추가됩니다.

- 긴급 태스크 「3번 상담실」
- 긴급 태스크 「4층의 사원과 접촉」
- 긴급 태스크 「액자 발견」

※태스크 「야간 순찰」과 긴급태스크를 모두 처리하면, 아래의 태스크가 추가됩니다.

- 태스크 「상사에게 보고」

## 태스크 「야간 순찰」

개요: 규정에 따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회사 건물을 순찰한다.

난이도: 8

트러블: 이동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육체 데미지 1점.

처리결과: 이 건물은 지하 포함 총 8층으로, 순찰해야 할 층은 1층부터 6층까지입니다.



(\*TGR본사 층별 안내도의 모습입니다. 탁에서 반영하시는것은 자유이며, 재가공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재가공 후 재배포는 금지합니다.)

(\*이미지 링크: <https://i.imgur.com/h48HYZ3.png>) (매크로로 사용 가능합니다)

1층은 로비, 카페, 관리부실이 있고, 2층에는 기술부실과 사내식당이 있습니다. 3층은 서무부실과 회의실, 4층은 조사부실과 세미나실, 5층은 영업부실과 상담실이 있습니다. 6층은 대표이사실이 있고, 그 옆에 옥상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밤에는 안전을 위해 잠겨있습니다.

→긴급태스크 「3번 상담실」, 「4층의 사원과 접촉」, 「액자 발견」을 추가합니다.

(\*각 층마다 발생하는 긴급태스크가 정해져 있습니다. 5층에서는 「3번 상담실」, 4층에서는 「4층의 사원과 접촉」을, 「액자를 뒤집는다」는 1층을 제외하고 무작위로 진행해 주세요.)

#### [묘사 예시]

1층: 로비, 카페, 관리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로비에는 카운터가 있고, 그 뒤에 TGR의 로고가 붙어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 벽에는 웃고 있는 직원들의 단체사진이 붙어있습니다. 출입구 옆에는 자그만 카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곧잘 이용하는 곳으로, 보자기 유령 모양 쿠키가 인기 메뉴입니다. 지금은 셔터가 내려가 있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장 구석을 살펴보면 빨갈게 불이 들어와 있는 CCTV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손을 흔들어줘도 됩니다. 관리부 사무실은 로커와 모니터가 반을 차지하는 좁고 살풍경한 공간입니다. 아까



인수인계를 하면서 들렀기 때문에 굳이 다시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살펴볼 경우 관리부장이 무뚝뚝하게 맞아줍니다.

**2층:** 기술부 사무실과 사내식당이 있습니다. 기술부 사무실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주로 개발에 몰두한 기술부원들이 무아지경으로 무언가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부 사원과 대화할 경우 최근 진행하는 실험은 '수직승강기를 이용한 차원간 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니저 재량으로 롤플해 주세요.) 사내식당은 창문이 통유리로 되어있어 낮에는 채광이 좋습니다. 야간에는 셔터가 내려가 있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3층:** 서무부 사무실과 회의실이 있습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층입니다. 야간의 서무부 사무실에는 외근 나간 사원들을 백업하는 보충 사원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평소엔 회의를 할때 쓰이지만, 파티 장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위층 사원들이 못다한 잔업을 처리하기 위해 내려와 있기도 합니다. (\*서무부실을 둘러보면서 직원들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처리를 하던 직원과 대화하다보면 전날 관리부에서 근무하던 동기를 포함한 팀원 전부가 휴가를 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팀원 전부가 휴가를 낸 건 이례적인 일이라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당연하지만 실종되었기 때문에 상부에서 휴가처리로 얼버무린 것입니다. 또한 사무실 구석에서 농땡이피우고있는 20대 남자 사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니저 재량으로 롤플해 주세요.)

**4층:** 조사부 사무실과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조사부 사무실은 이곳저곳에 고문서와 정체모를 물건이 쌓여있는 복잡한 공간입니다. 둘러보면서 물건들을 쓰러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녀야 합니다. 세미나실은 야간에는 잠겨있으나 마스터키를 받았기때문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들어가 보면 별 것 없습니다. 천장에는 빔프로젝터가 매달려있고, 대학 강의실처럼 책걸상이 층층이 놓여져 있습니다. 종종 이곳에서 전문 음양사를 모셔와 강의를 하거나 기술부의 신작을 선보이고는 합니다.

**5층:** 영업부 사무실과 상담실이 있습니다. 영업부 사무실은 낮 중에는 가장 시끌시끌한 공간으로, 그때문인지 사원들이 모두 퇴근한 야간에는 더욱 을씨년스러워 보입니다. 벽면에 비치된 로커에는 각종 제령도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은 사원들의 정신적 케어를 위한 공간으로, 항상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상담실의 벽면에는 상담사들과 사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코르크 보드에 붙어 있습니다.

**6층:** 대표이사실과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실은 지금은 잠겨져 있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옥상정원도 평소에는 개방된 공간이지만, 밤에는 안전을 위해 잠겨져 있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들어가보고싶다는 사원이 있을 경우, 상기 지급된 마스터키로 옥상정원에는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 긴급 태스크 「3번 상담실」

개요: 5층의 3번 상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매뉴얼 대로 행동한다.

난이도: 4

트러블: 그대로 몸을 돌려 나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끼이익-'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해당 사원은 자기도 모르게 그쪽을 바라봅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빛은

붉디 붉고... 그 사이로 무언가 검은 형체가 일렁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등골을 타고 섬찝한 소름이 돋습니다. 빠르게 도망칩니다. 정신 데미지 **1점**.

처리결과: 매뉴얼대로 그대로 몸을 돌려 해당 층을 벗어납니다.

(\*매니저 메모: 유령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 상담을 해주는 괴이 상담사입니다. '상담'을 받은 직원은 잠시간 회사에 나타나지 않지만 얼마 후 다시 나타나고, 상담사는 그를 다시 상담해주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는 끼치지 않지만 모습이 상당히 기괴하여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주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 긴급 태스크 「4층의 사원과 접촉」

개요: 4층의 사원에게 접촉하여 매뉴얼대로 행동한다.

난이도: 4

트러블: 사원의 얼굴을 봐버렸습니다. 본디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시커멓게 뚫린 구멍이 있을 뿐입니다. 땀 뚫린 구멍에서는 귀를 긁는 듯한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옵니다. 지금 당장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어째선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사원의 얼굴이 당신을 머리부터 집어삼킬 것처럼 바짝 다가오고.... (옆에 있던 동료의 부름/전화벨소리 등등)으로 당신은 퍼뜩 정신을 차립니다. 사원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기괴한 것을 목격하고 정신 데미지 **1점**.

처리결과: 사원은 알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갑니다.

(\*매니저 메모: 모종의 사연으로 회사에 묵인 지박령 사원입니다.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그의 얼굴을 보고 그 구멍을 통해 머리부터 삼켜지는 환상을 봤다는 직원들이 속속 나타났기 때문에, 되도록 직원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긴급 태스크 「액자 발견」

개요: 회사 복도에서 액자를 발견했다. 여긴 1층이 아닌데...? 매뉴얼대로 뒤집어 두자.

난이도: 4

트러블: 액자를 뒤집으려다가, (사진/그림) 속 (인물/동물/생물 등등)과 눈을 마주쳐 버렸습니다. '왠지 살아있는 것 같다', 는 생각이 뚝과 동시에, (사진/그림) 속 (인물/동물/생물 등등)이 기괴하게 입꼬리를 늘려가며 웃어 보입니다. 깜짝 놀라 다시 봐보면 아무 이상할 게 없는 보통 (사진/그림)입니다. 기괴한 현상을 목격하고 정신 데미지 **1점**.

처리결과: 매뉴얼대로 뒤집어 걸어두었습니다.

(\*매니저 메모: 기물보관실에서 빠져나온 액자 요괴입니다. 매번 액자 안의 그림이나 사진을 바꾸는 게 특징입니다. 해를 끼치지는 않고 단순히 사람들을 놀래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재주가 좋아 곧잘 도망쳐 나오는데, 그때마다 관리부장(상사)가 골머리를 썩습니다. 보통 하루 내로 잡힙니다.)

## 태스크 「상사에게 보고」

개요: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실종의 단서가 될 만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복귀하여 상사에게 보고하라.

난이도: 6

트러블: 상사에게 질타받습니다. 환경 데미지 **1점**.

처리결과: 상사는 실망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겠다고 상사가 말하던 중, 책상 위의 내선전화가 울립니다. 서무부에서의 연락입니다. 사원 하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급하게 CCTV를 살펴보지만 1층이나 지하주차장 CCTV에도 해당 사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다른 사원이 ‘그사람,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가던데요?’라고 말하는게 들려옵니다. (\*왜 진작 말 안했냐는 등 추궁하면 화장실 가느라 급해서 말을 못했다, 편의점이라도 갔다오려는 줄 알았다 등 롤플해 주세요.) 분명히 엘리베이터는 고장나지 않았던가요? 전임자들과 똑같이 강쪽같이 사라져버린 사원. 엘리베이터가 그 원인 이었을 수도....

상사는 기술부가 최근 ‘수직승강기를 이용한 차원간 이동’... 즉, ‘이세계로 가는 엘리베이터’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며 실종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면 귀땀해줍니다. (\*기술부 직원과 대화했을 경우 사원이 직접 떠올려내도록 연출해주셔도 좋습니다)

## 페이지3

페이지 3에서는 다음과 같은 태스크가 있습니다.

- 선택 태스크 「기술부와 컨택」
- 태스크 「제령 준비」
- 태스크 「엘리베이터 탑승」

※이 페이지에서는 긴급 태스크로 다음과 같은 태스크가 추가됩니다.

- 긴급 태스크 「이계의 ???」

## 선택 태스크 「기술부와 컨택」

개요: 기술부에 찾아가 실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는다.

난이도: 6

트러블: 일반 트러블표를 사용합니다.

처리결과: 자초지종을 들은 기술부의 사원들은 자신들의 실험이 예기치 못하게 성공했음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못마땅한 표정의 사원들을 보고, 큼큼거리며 다시 기색을 감추고는 엘리베이터가 실험 중 이계와 연결된 게 맞다면 아마 불완전한 연결일 것이기 때문에 영적 기운이 강한 1시부터 3시 중에만 작동할 거라고 말해줍니다. 사원들이 시간을 확인하면 새벽 2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기술부원들은 빠른 해결을 위해 이계 도움이 될 거라며 사원 모두에게 제령키트(이계 전용 사양)을 제공합니다. 사용 후기도 작성해 달라는 말도 덩으로 붙여서요.

→긴급 태스크 「이계의 ???」의 난이도를 1 낮춥니다.

## 태스크 「제령 준비」

개요: 이계의 존재에게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해서 나쁠 건 없을 터다.

난이도: 6

트러블: 일반 트러블표를 사용합니다.

처리결과: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습니다.

→긴급 태스크 「이계의 ???」의 난이도를 1 낮춥니다.

## 태스크 「엘리베이터 탑승」

개요: 문제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 마음을 다잡고 가자.

난이도: 6

트러블: 일반 트러블표를 사용합니다.

처리결과: 사원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문이 아가리를 벌리듯 스르르 열립니다. 어느 층을 눌렀건 엘리베이터는 제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있어 '띵'하는 도착음이 울리고, 천천히 문이 열립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시커먼 어둠.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랜지조차 구별이 가지 않는 어둠을 향해 손전등을 비춰보면, 그 너머로 무언가 꿈틀거리는데 보입니다.

→긴급 태스크 「이계의 ???」가 발생합니다.

(\*태스크 「기술부와 컨택」, 「제령 준비」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외되어 더이상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긴급 태스크 「이계의 ???」

개요: 그곳에 있는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촉수를 꿈틀거리고 있는 이계의 무언가였습니다. 생물이라고 하기엔 기괴하게 뒤틀렸고, 영혼이라 하기엔 그 존재감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곳곳에 촉수에 칭칭 감겨있는 사원들이 보입니다. 그들의 안색은 새하얗게 질려 마치 죽은 것 같지만, 미세하게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잠자듯 규칙적으로 움직이던 무언가가 서서히 눈을 뜹니다. 거대한 고깃덩어리 같은 그것의 몸뚱아리 곳곳에 박힌 크고작은 눈알들이, 시뻘건 안광을 번들거리며 이쪽을 향합니다.

난이도: 10

트러블: 촉수가 사원의 팔다리를 휘감더니 무시무시한 힘으로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육체, 정신, 환경 데미지 **1**점.

처리결과: ①태스크 「기술부와 컨택」을 처리한 경우, 제령키트(이계전용사양)의 영향으로 ???는 고막이 찢어질 듯한 끔찍한 소리를 내지르더니, 잡아두었던 사원들을 내던지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기어갑니다. 그것이 사라진 저 너머에서 동조하듯 같은 소리가 몇개고 겹쳐 들려옵니다. 같은 것들이 더 몰려오기 전에, 붙잡힌 사원들을 구출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탈출합니다.

②태스크 「기술부와 컨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든 ???의 주의를 돌려 그 사이 붙잡힌 사원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것이 사원들을 잡으려 미친듯이 휘두르는 촉수들을 피해 어떻게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탈출합니다.

(\*이계에서 사원들이 전원 리타이어했을 시, 사원들은 ???에게 붙잡혀 생명력을 빨리 사망합니다. 이후 본사에서 구조인력을 파견하지만 사체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무사귀환을 바라는 매니저의 경우, 보충인원을 적절히 투입해 주세요.)

## 추천 BGM

라이터가 세션 중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BGM리스트를 첨부합니다.

대기: [스산한 기류](#)

도입파트: [Taisei Iwasaki - "World Goes Round" \(Blood Blockade Battlefront OST\)](#)

상사와 대화: [Ominous | Deishuu Kaiki theme](#)

메인 파트: [BGM - 불안, 긴장](#)

긴급 페이지 발생: [Dark Souls II Soundtrack - King Vendrick \[HQ\]](#)

사원 사라짐: [검은방3 OST 06 Conspiracy](#)

기술부와 컨택: [비밀의숲 \(비밀의숲\)](#) (중간에 너무 웅장해지긴 합니다...적당히 끊으셔도)

엘리베이터 탑승: [October 26th](#)

이계의 XXX: [Outlast Official Soundtrack \\_ 21 Male Ward Chase](#)

결말파트-무사귀환시: [▶ In This Silence \(Instrumental Ver.\) - Ha Hyun Woo | Stranger 2 \(...\)](#)

-전멸시: [▶ Dexter Soundtrack - Track 06, Funny](#)

## 후기

나폴리탄 괴담 중 야간 경비원을 소재로 한 프로젝트를 꼭 써보고 싶었던 관계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해 주신다면 기뻐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198X년 강원도 신규 간호사 매뉴얼>, <Sensual Love Motel 야간근로 직원 행동수칙>을 일부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